

평양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대성산의 옛 못들

대성산성을 돌아본 우리는 동행한 립금석 평양시민족유산보존사 실장으로부터 산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계속 들었다.

산성전이 대표적이던 중세기에 장기전에 대처하려면 물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했으므로 산성쌓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 문제의 하나는 물문제였다.

대성산에 물줄기가 없는 조건에서 고구려사람들은 산성을 쌓을 때 땅속의 물을 다 찾아냈으며 지어 비록까지도 잡아서 유효하게 썼다고 한다.

우리는 실장의 안내를 받으며 대표적인 옛 못들을 돌아보았다. 대성산성안의 못들은 그 모양이 네모난것과 둥근것, 삼각형 등 여러가지였고 크기와 깊어도 일정하지 않았다.

물깊이만 보아도 사람의 가슴정도까지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한걸음 훨씬 넘게 깊은 곳도 있었다.

옛 못들을 돌아보며 거기에 깃들여있는 전설들도 들을 수 있었다.

고구려가 대성산에 수도방위성을 건설하면서 음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축조한 가장 큰 못이라고 하는 잉어못은 외래철학자들이 대성산성을 포위하고 성안의 군민들을 기아위기에 몰아넣어 항복시키려 할 때 성안의 못에서 잉어를 잡아 적들에게 보여주는 기발한 책략으로 침략자들의 기를 꺾어놓고 성을 사수하였다는 전설에 따라 지었다고 한다.



동통호



미천호



사슴못



구룡못

복시키려 할 때 성안의 못에서 잉어를 잡아 적들에게 보여주는 기발한 책략으로 침략자들의 기를 꺾어놓고 성을 사수하였다는 전설에 따라 지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우리 민족의 령사에 기록되어있는 녀성인 룡족부인이 사슴들을 키우기 위하여 꾸짖는 전설이 전해지고있는 사슴못, 아홉마리의 룡이 못에 있으면서 대성산일대가 가물어 논밭과 식물들이 말라버릴 때면 바람과 구름을 몰아오고 대동강물을 끌어다 비를 내려주었다는 전설이 깃든 못들도 있었다.

이밖에도 고조선의 옛땅을 수복하고 고구려의 국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한 고구려의 동천왕과 미천왕의 시호를 딴 호수들도 있었다.

옛 못들은 고구려사람들의 애국의 넋을 길이 전해주며 인민의 문화유산으로 훌륭히 전승된 대성산의 풍치를 더욱 돋구어주고 있었다.

장수영

림은심은 2005년부터 청춘거리 령기경기관측소년체육학교(당시)에서 령기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세계적인 령기강자로 널리 알려진 립정심과 자매간인 그는 언니와 경쟁하면서 기초기술을 튼튼히 다지기 위해 이악하게 노력하였다.

언니처럼 앞날의 세계적인 령기강자가 될 포부를 안고 그는 남보다 배가의 노력을 기울이며 훈련에 열중하였다.

기관차체육단에서 선수생활을 하면서 그는 지난 시기 제18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제1위를 할것을 비롯하여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뚜렷한 성과를 안아왔다.

2019년 한해에 진행된 국제경기들에서 립은심이 이룩한 성과는 다음과 같다.

- 2019년 국제력기련맹 세계력기선수권대회 녀자 64kg급 경기에서 3개의 은메달 쟁취.

- 2019년 국제력기련맹 세계력기대회 녀자 64kg급 경기에서 3개의 금메달 쟁취.

- 2019년 아시아력기선수권대회 녀자 64kg급 경기에서 3개의 금메달 쟁취.



2021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들

녀자력기선수 립은심

- 2019년 국제력기련맹 세계력기선수권대회 녀자 64kg급 경기에서 3개의 은메달 쟁취.

- 2019년 국제력기련맹 세계력기대회 녀자 71kg급 경기에서 3개의 금메달 쟁취.

그는 10여차의 국제경기들에서 20개의 금메달을 포함한 30여개의 메달을 쟁취하

는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공훈체육인으로 되었다.

그의 남다른 우점은 자신에 대한 높은 요구성과 함께 기술동작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완전무결하게 소유하기 전에는 훈련장을 떠나지 않는것이다.

림은심은 지난해에 진행된 국제경기들에서 2개의 금메

달과 1개의 은메달을 쟁취하는 성과를 이룩하고 2021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 최우수선수로 선정되었다.

지난해까지 그는 여러 차례에 걸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로 선정되었다.

본사기자

천연기념물

국도

기에 2개의 작은 동굴이 있는데 굴안에도 역시 총석류들이 출몰하였다.

기묘한 현무암의 주상절리가 발달한 150여개의 6각기 등모양의 립총들은 20~30m 높이로 절벽을 이루고있으므로 사람들이 접근할수 없고 서쪽은 완만한 경사로 되어 있어 사람들이 오르내릴수 없다.

북서쪽바다에는 와룡, 립총, 속이 구새먹은 나무처럼 둥근것, 꼭대기에 울러붙은 모자처럼 돌을 이고있는 것 등 여러 모양의 돌들이 많다.

본사기자

그러므로 섬이 모두 하나의 총석류음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할수 있다.

섬에는 떨기나무들과 풀식물들이 자라고있으며 바다새들이 살고있을뿐 아니라 수산자원도 풍부하다.

원래 참대가 많아 죽도라고 불렀는데 이곳 사람들이 섬에 있는 참대로 화살을 만들어 나라방위에 썼다고 하여 죽도라고 고쳐부르게 되었다.

죽도는 바다가운데 있는 섬으로서 그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 천연기념물이다.

본사기자



1. 파리꽃은 작음 실내에 도마도를 심은 화분을 몇개 놓으면 파리가 들어오지 않는다.

2. 국이 짜졌을 때 국이 짜졌을 때 물을 넣으면 안 되는 경우 도마도 몇조각을 넣는다.

3. 피부에 대한 미백작용 도마도에는 많은 량의 비타민C가 포함되어있다.

4. 노린내제거 도마도는 거드랑이에서 나는 노린내를 제거한다.

목욕후 목욕통에 500ml의 도마도 즙을 넣고 랑쪽거드랑이를 물속에

15분동안 잠그고있는다. 이렇게 매주 2차 진행하면 노린내를 없앨수 있다.

5. 녹물없애기 백셀그릇에 녹이 쓸었을 때 한개의 생선한 도마도를 두 조각으로 잘라 자른 면으로 녹이 쓴 부위를 문지르고 몇분 지나서 물로 씻어내면 녹을 없앨수 있다.

6. 손에 묻은 잉크흔적없애기 손가락에 잉크가 묻었을 때 도마도즙을 오얏된 곳에 바르고 헹겙하면 다음 물로 씻어내면 잉크흔적이 말끔히 없어진다.

본사기자

현대교육발전추세에 맞게 교수방법을 개선해간다

- 고려성균관에서 -



교육방법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종전의 리론교육을 위주로는 학습과 문헌연구에 기초한 교수로 전환시키면서 실험실습을 비롯한 실천교육의 비중을 높이는 한편 교육의 물질적토대를 구축하는 사업도 추진하고있다.

교육내용의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를 일관하게 들어 취고나가고있는 식료공학과 고령방직학부, 교육과학연구소의 교원들은 학생들의 사고능력과 응용능력을 개발시켜줄수 있는 새 교수방법들을 적극 탐구활용하

고있다. 원격교육학부에서는 가상현실기술을 리용하여 학생들의 탐구능력과 인식효과를 높일수 있는 모의실험실습체계, 가상참관체계를 받아들이는 한편 사유지도교육을 짜고들이 학생들의 실력을 제고하고있다.

대학에서는 모든 교원들이 학생들을 나라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인재들로 육성하는데 기본목적을 두고 현대교육발전추세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체제와 교수관리를 개선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고있다.

본사기자

교육지원프로그램들을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며 학부, 강좌들에

공화국의 고려성균관에서 현대교육발전추세에 맞는 새 교수방법들을 연구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새 세기 교육혁명의 요구에 맞게 대학에서는 목요강좌의 날 운영과 교수합평회 등을 통하여 교육내용과 실천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이



몽천 (2) 글 권영희, 그림 김윤일

그들이 마당안에 들어서자 우물에서 무엇인가 썩고있던 불목 하나가 일어나 공손히 절하며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였다.

리서방이 《우리는 금강산 구경 온 길손인데 날이 저물었기로 하루밤 묵어가자고 들렀소.》 하니 그는 물물은 손을 들어 암자뒤를 가리키며 《저기 잠간 앉아계십시오. 우리 스님이 지금 저녁 불공을 드리는중이십니다.》 하였다.

그들이 퇴알으로 가는데 문득 리서방이 발걸을 멈추고 한곳을 지켜보며 《무어, 몽천이라?...》 하더니 불목 하나가 돌아다보고 물었다.

《이 돌에 몽천이라 써있으니 이 샘이름이요?》

《네, 그렇습니다. 무어 신령이 꿈에 나타나서 얻은 우물이라 《몽천》이라 한다 하더이다. 이따가 우리 스님한테 들으십시오. 자랑삼아 늘 이야기하곤 하십니다.》 하고 불목 하나는 말하였다.

정말 이름과 같이 그 샘이 이상도 하였다. 그리 크지 않은 돌학속에 남실거리는 물이 손을 잡으면 금시 물이 들것처럼 파란 비취색이었다.

《몽천이라...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을것같소. 연서방.》

뒤쪽으로 걸어가며 리서방

가막조개젓

음식감으로 가막조개살 300g일 때 무우 100g, 소금 6g, 참기름 5g, 사탕가루 10g, 파 5g, 마늘 10g, 생김초추가루 2g, 참깨 1g을 준비한다.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막조개살에 채로 썬 무우와 소금, 다진 파와 마늘, 생김 초추가루, 참기름을 두고 잘 무친 다음 단지에 담



본사기자

《개성》과 《특성》

《개성》이나 《특성》이나 다 《그것에만 있거나 그것을 특징지을수 있는 성질》이라는 뜻에서 같은 점이 있다.

그러나 《특성》이 주로 사물과 현상에 고유한 성질을 나타낸다면 《개성》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그 사람에게만 고유한 특성》이라는 뜻으로 주로 사람의 성격에 관하여서만 쓰는 말이라는데서 《특성》과 구별된다.

본사기자